

## 의욕만 앞 선 전남도·시·군 정부 공모사업 줄줄이 탈락

국비 확보 치열한 논리 개발·현안 대응전략 재점검 해야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정부 공모사업에서 잇따라 탈락, 공모 준비와 현안 대응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 많게는 수백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 정책을 펼치겠다는 공모에 뛰어든다고, 정작 의욕만 앞서 국비 확보를 위한 치밀한 논리를 개발하는데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모사업 줄줄이 탈락...의욕만 앞섰나...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와 시·군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의욕적으로 뛰어든다고 탈락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당장,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선정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선정된 19곳 중 전남은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전남에서는 애초 목포, 곡성, 순천 등 3곳이 도전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도심 쇠퇴지역에서 공공 이용이 가능한 장소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지난해 해(4개)보다 사업 대상지를 대폭 늘렸지만 전남은 대상지가 없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특화된 스포츠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겠다는 취지로 추진한 '2019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사업에도 선정되지 못했다. 장흥군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뛰어났지만 공모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정과제로 정부의 핵심 사회정책으로 꼽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대상지에서도 빠졌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병원이 아닌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순천시가 공모에 뛰어 들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만 41만4807명으로 노인인구비율(22.1%)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지역 상황을 고려하면 어느 지역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공모사업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공모에 뛰어든 순천시도 시장이 직접 나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등 의지를 보였지만 끝내 대상지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다. 다만, 순천시는 정부 예산이 확대될 경우 사업 추진이 가능한 '예비형 선도사업 지자체'에 포함되면서 그나마 안도하는 분위기다.

또 국토해양부의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목포 해변따라 맛길 30리'라는 사업으로 도전했던 목포는 완도도 달리 탈락했고 'e 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에 도전했던 순천시도 탈락의 쓴맛을 봤다. 앞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지능화한 스마트양식장과 대량 생산단지, 가공·유통·수출단지,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 연관 산업이 모여 있는 '대규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에서도 전남은 부산에 사업을 내줬다.

◇공모사업지원팀, 만들긴했는데...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뛰어드는 데는 사업 대상지로 선정

될 경우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액을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열악한 살림살이의 한계를 극복, 다양한 지역 발전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감안, 중앙 정부의 공모사업을 총괄 관리하면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지난해 공모사업 지원팀을 별도로 조직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모사업지원팀의 경우 중앙정부 공모 사업을 파악, 해당 부처와 시·군에 안내하는 것을 비롯,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가 하면, 4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한 서면·현장·발표 평가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일선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문체부의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에 응모했다가 탈락한 목포·순천·곡성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이뤄지지 않았고 'e 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에 나선 순천도 별도 컨설팅 지원을 받지 못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신규지역 특화 스포츠관광사업 등도 사업계획 구체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받지 못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당 시·군의 대응 전략 부재와 전남도의 실무적 뒷받침이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군이 아닌, 전남도 해당 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준비·응모·선정 단계별로 컨설팅을 비롯한 지원 사항을 펼치고 있다"면서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생활 SOC, 수소경제 분야는 중점 대응 3대 분야로 선정해 모든 단계에 대한 행정 지원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성과 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영선·김연철 임명 ... “능력 보여달라”

문대통령, 장관 5명 임명장  
3년차 국정 운영 진영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김연철 통일·진영 행정안전·박양우 문화체육관광·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5명의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들 가운데 박영선·김연철 장관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로 국회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관련기사 4면〉

문 대통령은 이들에게 임명장을 준 뒤 가진 환담에서 “문재인 정부 중기(中期)를 이끌어갈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아주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이를 통해 행정·정책 능력을 잘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반발에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임명한 데에는 “여기서 더 밀린다면 임기 중반기를 맞은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조동호 전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또 다시 탈락자가 나온다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 문제에서까지 야당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추가로 탈락 후보가 생길 경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욱 인사수석 등 이른바 ‘조조 라인’에 대한 한국당 등 야권의 ‘책임론’ 공세가 더 거칠어질 수 있는데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정부의 핵심 개혁과제 관철에도 난항이 우려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지난달 8일 개각 발표 이후 한 달 만에 ‘2기 내각’ 출범 절차가 끝났고 집권 3년차 국정 운영을 위한 진영 구축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국정 포기 선언’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국이 급랭할 전망이다. 당장, 이날 회기가 시작된 4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파행이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장관 임명에서부터 쟁점 법안에 이르기까지 시각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토농예 - 아트위커 유통준씨 ▶18면



‘호수의 여왕’ 고진영 전성시대 ▶20면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미국서 별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별세했다. 향년 70세. 대한항공은 조 회장이 이날 새벽 0시 16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병원에서 폐질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운구 및 장례 일정과 절차는 추후 결정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2면>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회장이 폐질환이 있어 미국에서 치료를 받던 중 대한항공 추종 결과 이후 사내이사직 박탈에 대한 충격과 스트레스 등으로 병세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조 회장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장녀 조



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가족이 조 회장의 임종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요양 목적으로 LA에 머물러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회장을 한국으로 모셔오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20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100년,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